

HOLY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531 East Weddell Dr. Sunnyvale, CA 94089 www.sjkoreancatholic.org

부활 제6주일

승천을 앞둔 스승님께서서는 제자들이 안쓰러우셨습니다.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리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분께서 오시어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을 알도록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바라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 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성령의 활동만을 강조한다면 잘못된 신심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싸여 있던 그들이 사도로 바뀐 것입니다. 본인들이 생각해도 놀라운 변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느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자신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면, 우리에게도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신앙생활은 바뀝니다. 사람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 대로 바뀝니다. 믿음의 이유가 고통을 피하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몫’의 십자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왔을 때는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얻고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처럼 받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움을 주는 분이십니다.

◆ 미사 성가 : ◆ 입 당 (329) ◆ 봉 헌 (34, 214) ◆ 성 체 (175, 162) ◆ 파 견 (44)

제 1 독 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5,1-2.22-29 (성령과 우리는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화 답 송 : 시편 67(66),2-3.5.6과 8(◎ 4)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 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 2 독 서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21,10-14.22-23
(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23-29

주 임 신 부	황 선기 마티아	408-734-9722	<주 일 미 사>	<사 무 실 시 간>
전 교 수 녀	김 아나니아	408-261-9520		
사 목 회 장	김 테오도시아	408-363-9908	청년(토요특전) 미사	월요일 휴무
선종봉사회장	윤 필중 바오로	408-529-6757	첫 미 사	화요일 9 am ~ 5 pm
		408-482-2677	교 중 미 사	수요일 9 am ~ 1 pm
사 무 실	여 성운 안드레아	408-734-9721	어린이미사	목요일 9 am ~ 5 pm
	fax)	408-734-9723	중고등부미사	금요일 9 am ~ 5 pm
주일학교교감	김 경민 아델라이다	408-807-6400	<평 일 미 사>	
한국학교교감	안 희경 엘리사벳	408-914-1525	화, 목요일	토요일 9 am ~ 1 pm
중고등부교감	이 승익 데니스	408-887-7764	수, 금요일	일요일 9 am ~ 4 pm
고 해 성 사	미사 전 30분		<정 규 교 육 안 내 >	
병 자 성 사	수시로		예비자교리	일요일 9:00 am
유 아 세 례	4, 8, 12월 첫째 토요일		주 일 학 교	일요일 2:00 pm(초등부), 1:00 pm(중고등부)
혼 인 성 사	3개월 전 주임신부와 면담		한 국 학 교	토요일 9:30 am
병자영성체	매월 첫째 금요일		성 경 공 부	수요일 10:00 am, 7:30 pm / 토요일 청년미사 후
준 성 사	집, 가게 축복: 해당 반장에게 신청		소공동체장교육	매월 마지막 화요일 미사 후
	차 축복: 사무실에 신청		혼 인 교 리	매월 둘째 목요일 미사 후

함께 하는 기쁨, 넓혀지는 복음

광고에 참여하신 교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은 선교홍보비로 지출됩니다. 주님의 축복 있으소서.

<p>TATAMI 타타미 스시 씨푸드 뷔페 SUSHI & SEAFOOD BUFFET www.tatamibuffet.com 북가주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고품격 일식 뷔페 들잔치, 생일 잔치, 결혼 피로연, 각종 모임등 단체 예약 환영 Vallco Shopping Mall / 10123 N. Wolfe Rd. #2001, Cupertino Tel: 408-996-3444</p>	<p>스모그 체크 오일 체인지 3k,6k,9k 정비 터보 자동차 정비공장 3170 El Camino Real #FG Santa Clara, CA 95051 정윤홍 요셉 Tel: 408-554-1199 (24hrs)</p>	<p>이은영 부동산 Infohome Realty 부동산 매매, 용자 재용자 이은영 클라우디아 408-316-2032</p>	
<p>중앙 종합보험 자동차/주택/Life/건강/사업체 연금/교육/종업원 상해 박진완 안토니오 408-260-7089</p>	<p>카미노 당구장 고태호 마태오 408-249-7425 3030 El Camino Real (서울 곰탕 옆)</p>	<p>Heritage Park Willowbend Apartment Sunnyvale에 위치 / 편리한 교통 좋은학교 / 수영장 / 운동시설 등을 갖춘 아파트 단지 408-738-3553</p>	<p>백형욱 (바오로) 치과 827 Blossom Hill Rd. #E-4, San Jose  (408) 226-5560 www.DDSBaik.com</p>
<p> Smythe European Mercedes - Benz 벤츠를 가장 잘 아는 한국인 케니 김 베드로 cell: 408-515-0001</p>	<p>석병엽 부동산 미주 부동산 주택/사업체 매매전문 석병엽 스테파노 408-483-7694 cell</p>	<p>잔김 종합 보험 생명/연금/건강/차량/주택 비즈니스/상해 보험 김인홍 요한 408-314-4079</p>	<p>Dolphin's 수영장 관리 수영장 수리 및 관리 김한수 어거스틴 408-378-8240</p>
<p>앤디 여 부동산, 용자 ERA-East West Realty 여 성운 안드레아 408-318-1550</p>	<p>강해나 부동산 REMAX ACCORD 산라몬 멘빌 플레즌트 더블린 강 올리안나 925-389-2162 hannahkang@yahoo.com</p>	<p>건강 마을 선식 생식 그 외 다양한 건강 보조 식품 캘러리아 마켈 내 안병선 요한/안해숙 크리스티나 408-246-2430</p>	<p>플러밍 & 드레인 ◎ 상·하수도 막히고 새는 곳 ◎ 부엌 및 화장실 수리 ◎ 번기 디스포잘, 보일러 수리, 교체 <캘리포니아 플러밍> 이원권 마지아 408-252-1134 / 650-322-2458</p>
<p>이동준 공인회계사 개성상인 성공신화 3380 El Camino Real, Ste A Santa Clara, CA 95051 (FANCI 공인회계법인 CEO) 이동준 크리스토퍼 408-241-9615</p>	<p>성 토마스 병원 일반내과 / 물리치료과 척추 신경과 1470 Halford Ave. SC 심형근 크리스토퍼 408-260-7575(치료치료)</p>	<p>중앙치과 일반치과, 교정치과 2998 El Camino Real #200 Santa Clara, CA 95051 안상균 요셉 408-241-2397</p>	<p>박현교 산부인과 2405 Forest Ave. #202 San Jose, CA 95128 박현교 바드리시오 408-260-3900</p>
<p> 황 준오 웨미리 치과 소아치과, 일반치과, 치아교정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408-732-0493</p>	<p> 뉴스타 부동산 김 카타리나 408-821-9788 1021 S. Wolfe Road #105 Sunnyvale, CA 94086</p>	<p>지드한인업소록 유익한 매거진 즐거운 한주  탁정현 토마스 / 탁경아 예바 TEL: 408-499-6543 / 408-248-0017</p>	<p>박경숙 소아과 3484-D Stevens Creek Blvd. 박경숙 아가다 408-293-3333</p>
<p>박안나 부동산 Alain Pinel 박안나 안나 650-543-1080(D) 650-387-6159(C)</p>	<p>솔로몬 종합 건축 주택 설계, 허가, 시공 전문 주방, 화장실 Remodeling Hard Wood Floor, Tile 조경 원주연 다니엘 408-781-5256</p>	<p>정수기 비데 아쿠아 라이프 정수기 가정용, 상업용, 사무실용 렌트 판매, 수리 이웅우 베드로 1-800-500-7714</p>	<p>소담 한의원 통증, 여성질환, 비만전문 각종 보험, 교통사고, 직장상해보험 1288 Kifer Rd. Suite #202 문삼현 아네스(LAC, QME) 408-930-7706</p>
<p>산호세 농축 흑염소 농축 이부동삼합탕 농축 장어, 잉어, 붕어 배즙, 양파즙, 호박즙 408-202-0111 문용철 요한</p>	<p>데비 양 부동산,용자 Smart Realty MOA Financial Group 양희진 데보라 408-205-7564</p>	<p>박 병국 가정주치의, 내과 Family Practice 100 O'Connor Dr. Suite 11 San Jose, CA 95128 Ph. : 408-885-0807 Cell : 831-818-2959</p>	<p> Golf Tech PGA 정식인가학교 컴퓨터 스윙 분석/교정 Custom 클럽 제작/수선 Terry Kim 비오 408.316.0056</p>
<p>알렉스 박 변호사 Law Offices of Alex C. Park 이민 형사 상법 추방재판 상해 교통사고 408-246-1515</p>	<p> 최동석 유스티노 Santa Clara 408)828-2849 Fremont 510)919-4556</p>	<p>게스관광 서부관광 전문 크루즈 전문 엘로스톤 / 동부 / 캐나다 윤 바오로 408-244-0133 / 408-944-9007</p>	<p>SKOOL-AID 학원 전 과목/개인, 그룹지도/교육상담 1072 De Anza Blvd. #B203-204 San Jose, CA 95129 정성애 카밀라 408-517-0500/757-1808</p>
<p>VIVI Fashion Jr.들이 좋아하는 최신 style의 clothing 3050 Story Rd. San Jose 장상영 요한 408-483-8440 ※ 이 광고를 오래 오시면 20% DC</p>	<p>연화 유리 Lotus Glass Inc. 주택 이중 유리 전문 자동차 유리 교환 408-297-6262(유리유리)</p>	<p> Selcomm Wireless Verizon Premium Retailer Sunnyvale 한국마켓내 서 베드로 408-554-6010</p>	<p>신수형 용자 MOA Financial Group 신수형 소피아 408-712-8500</p>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에 등록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1)증명서(세례, 건진, 혼인)를 제출한다. 2)한국 본당의 교적을 제출한다. 우리 본당에 등록을 한 교우들은 아래 3 가지를 지켜나가도록 합니다.

- ▶ 소공동체 모임에 꼭 참여하도록 합니다.
- ▶ 1년에 최소 2번 이상 한국미사와 2회 이상의 (부활, 성탄) 고해성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매달 정성껏 교무금(Donation)을 교회에 봉헌합니다.



새 하늘을 바라보고, 새 땅을 밟으며...

기쁨과 슬픔이 씨줄과 날줄로 만나는 곳, 희망과 번뇌가 산소와 수소처럼 결합되어 있는 곳, 그곳은 우리 자신이며 동시에 세상입니다. 그래서 슬픔에서 기쁨을 기다리는 인내와 용기가, 희망에서 번뇌를 준비하는 지혜와 겸손이 값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를 묵상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축제의 들뜬 분위기나 잡히시기 전의 불안하고 두려운 분위기는 읽을 수 없고,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담담합니다. 아버지께 가실 때가 왔음을 아신 예수님이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편에서 그 때가 임박하자 제자들이 산란해질까 봐, 겁을 낼까 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며 다독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 일”이 닳치자 제자들은 실제로 산란해졌고, 겁을 내며 달아났으며, 무서움에 문을 잠그고 숨어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께 가신” “그일”이 제자들에게는 그저 끔직한 ‘십자가 처형’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 하느님 아버지와 세상에 대한 극진한 사랑으로 목숨까지 내어 놓으신 스승 예수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물론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날 저녁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 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와 “모세의 관습”같은 인간의 능력으로 쟁취하려는 구원, 곧 세상이 주는 평화가 혼재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평화가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평화를 가리거나 우리를 미혹하기까지 합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불의가 위세를 떨칠 때도 있고, 착각하고 속을 만큼 거짓 평화가 그럴듯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겪으며 인내하면서도(묵시1,9참조)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양이 도성의 성전”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믿고 희망하며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만으로 ‘화려한 도성 예루살렘’을 쌓으려니 불안과 부조리와 불의에 시달리며 고통과 슬픔과 번뇌의 늪에 빠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우외환의 세상 한 복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도들은“(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과...결정 하였습니다.” 성령과 함께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서 새 하늘을 바라보고, 새 땅을 밟는 길입니다. 안팎의 내 처지와 주변과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봅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만 옮기십시오. 성령께서 함께하십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의 성사에 언제나 맞갖은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아멘.

흔없는 저들과 봉헌

지난 주일 야외미사 및 봄 야유회 관계로 주일헌금과 교무금 집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주보에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2010년 ADA 교무금 봉헌 또는 약정하신 분

\$95,237 (목표액) - \$87,682(약정금) = \$7,555(잔금)

■ Capital Campaign 2008 봉헌 또는 약정하신 분

\$1,060,000 (목표액) - \$78,520 (약정금) = \$981,480 (잔금)

■ 건축기금 모금

지난주 합계	금주 합계	누 계
\$1,050,751.48	0	\$1,050,751.48

■ 신앙서류 도착 - 사무실에서 보관 중입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서류를 찾은 후 본당 신부님과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본명	발송 본당	내용물	도착일
김호성	레오	시카고, 한국순교자	전출교적	4/29
김봉석	베드로	오클랜드, 성김대건	전출교적	3/10
김영훈	돈보스코	서울, 화곡본당	전출교적	2/25
곽인애	살비아	인천, 제물포본당	전출교적	2/24
강희선	아나디시아	서울, 독산동	전출교적	1/28
박은영	안젤라	수원, 구성	전출교적	1/12
유성원	요한	서울, 방배동	전출교적	12/6
최윤원	요한	수원, 과천	전출교적	10/13
이재환	베드로	부산, 성가정	전출교적	5/17
정승목	시몬	수원, 수지	전출교적	5/9
남기용	니콜라오	수원, 동백제1	전출교적	3/22

■ 주일미사 전례담당 구역

주 일	담당 구역	구역 장
부활 제 6주일	로스알토스	최일해 다니엘
주님승천 대축일	산호세 1구역	허순구 야고버
성령강림 대축일	산호세 2구역	강석용 베드로
삼위일체 대축일	산호세 3구역	홍일영 리차드

※ 축하드립니다

영명 축일(5월 14일)을 맞으시는 본당 주임 신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하식이 오늘 교중 미사 중에 있습니다. 미사 후에 친교실에서 국수 잔치가 있습니다.

- 지난 주일 있었던 2010년 야외미사 및 봄 야외회에 총 650 여명의 교우 분들이 참석하시어 친교와 은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교우님들과 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ADA (교구청 교무금) 신청

교구청 교무금 신청양식을 각 가정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금년 저희 본당의 분담금은 \$95,237.00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309세대가 \$87,682를 약정하시어 92%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남은 금액 \$7,555를 끝낼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사제 서품 및 부제서품식

6월 5일(토) 산호세 교구의 첫 한인 사제로 탄생하는 김조셉 요셉 부제님의 사제서품과 6월 19일(토) 김지훈 스테파노 학사님의 부제서품을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제가 될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사 전 “사제를 위한 기도”를 봉헌하겠습니다.

■ 2차 현금

5월 16일(일)은 교구청에서 모금하는 “Catholic Charities”을 위한 2차 현금이 있습니다.

회의/단체/모임

■ 빈첸시오회 월례회

일시 : 5월 9일(일) 8시 미사 후 제 2교실

■ 단체장 회의 : 5월 11일(화) 미사 후

■ 전례분과 해설단 모임 : 5월 13일(목) 미사 후

■ 울뜨레아 월례회 : 5월 13일(목) 미사 후

■ 레지오 마리아 꾸리아 월례회

일시 : 5월 16일(일) 교중 미사 직후 / 장소 : 말씀의 방

■ 제3회 신부님 배 골프 대회 (한국학교 기금마련)

일시 : 5월 16일(일) 오후 1시30분(shot gun 방식)

장소 : Coyote Creek Golf Valley Course

회비 : \$95.00 (점심, 저녁 및 푸짐한 상품,

5월3일 이전 접수시 \$5.00 할인)

문의 : 성우회 408-636-6727,

■ 빈첸시오회

무숙자 식사접대를 5월 16일(일), 23일(일) 오후 4시 30분에 산호세의 E.H.C.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함께 봉사하실 수 있으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문의: 나중빈 프란치스코 408-655-7078

■ 구역장 회의 : 5월 18일(화) 미사 후

■ 사목협의회 : 5월 20일(목)

함께 기도해주세요

- 주님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본당 주보에 공지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반장님과 구역장님을 통하여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영성생활

- 찬미 미사 : 5월 18일(화) 7시 30분 저녁 미사

■ 어린이 첫 영성체 일정

일시	내용	요일	시간
5월 15일	예행연습	토요일	오후 2시
5월 16일	첫 영성체미사	주일	교중미사

양에릭(어거스딩)어린이
박정현(세실리아)자매님
김성태(야고보)형제님
임승빈(다윗)학생
이정자(올리안나)자매님
황종렬(마리안나)자매님
이재섭(니콜라스)형제님
김용화(에밀리아나)자매님
김지원(실비아)자매님
안태주(마리아)자매님
민장석(레오)형제님
김태영(베로니카)자매님
이복례(마리아)자매님
김윤주(패트루아)자매님
김봉희(마리아)자매님
최은희(리사)자매님
박갑순(루시아)자매님(치매)
김지만(토마스)형제님

유상수(분도)형제님
이순(에우프라시아)자매님
윤정수(베드로)형제님
현옥선(세실리아)자매님
박찬우(어거스틴)어린이
이영재(헬레나)자매님
임인식(요셉)형제님
김마리아(마리아)자매님
김종환(아벨로)형제님
김순덕(까리마스)자매님
김영성(모세)형제님
이용범(야곱)형제님
김병국(베드로)형제님
최성욱(엘리사벳)자매님
노호경(베로니카)자매님
어희순(안나)자매님
신문일(아드리아나)자매님

청소년

■ 초등부 학부형회 모임

일시 : 5월 9일(일) 오후 2시 구사무실

■ 중, 고등부 학부형회 모임

일시 : 5월 16일(일) 오후 2시 구사무실

기타

※ 새로 우리 본당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미사 후에 만남의 장소에서 환영위원님들과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